

『정조 실록』 속 ‘탕평정치’를 통해 다시 해석하는 정조의 모습

사학과 1601

<목차>

- I. 머리말
- II. 『정조 실록』 속 ‘탕평’의 용례
- III. 영조 탕평의 계승과 극복을 위해 발화된 탕평의 맥락
- IV. 측근 세력의 비호를 위해 발화된 탕평의 맥락
- V. 맺음말
- 참고문헌

I. 머리말

많은 이들에게 있어 ‘정조’는 역대 조선의 왕들 중에서도 인간적으로, 학문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두 빼어났던 훌륭한 왕으로 기억된다. 실제로 우리는 그의 이름만 떠올려도 당시의 눈부신 사회경제적 발전과 자유로운 사상의 분위기를 무의식적으로 상상하곤 한다. 아버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민을 사랑하며, ‘개혁군주’로 대표되는 정조의 모습은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동경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정조에게 부여된 환상은 19세기 역사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대조를 이루며 한층 극대화된다. 마치 명과 암처럼, 정조가 우리의 기억 속에서 빛날수록, 정조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시작되는 19세기는 더욱 어둡게 그려지는 것이다. 이는 당파 간 조화가 모색되던 18세기의 탕평정치가 19세기에 들어서 소수 가문의 사적 이해관계에 의해 공적 정치영역이 희생되는 세도 정치로 좌절되고, 18세기의 조선 후기 자유로운 사상적 분위기가 정조의 죽음 이후 탄압적인 분위기로 경색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18세기와 19세기의 정치적, 문화적 측면에서의 극적인 반전과 단절적인 평가가 과연 당시 역사적 실체를 반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어떻게 조선의 제2 전성기로 불리는 성군의 시대가 군주 한 명의 안타까운 죽음이라는 이유만으로 탐욕과 절망의 시대로 급변했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사실 정조가 조선 후기의 역사적 르네상스를 이끈 군주로 적극 평가받게 된 데에는 조선 후기 역사학계의 연구사적 흐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식민주의 사학의 극복 문제와 정조가 조선의 영웅으로 평가 받게 된 1990년대의 시대적 상황이 정조와 그의 시대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역사학계의 최대 과제는 식민사학의 극복이었다. 특히 조선 후기의 역사상과 관련해서는 ‘당쟁망국론’으로 대표되는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극복이 학계의 주된 과제였다. 1970년대 자본주의 맹아론, 내재적 발전론 등이 사회경제사의 차원에서 식민사학의 극복을 모색한 것이었다면, 1980년대에 대두된 ‘붕당정치론’은 조선후기 정치사에 대한 복권의지의 반영이었다. 이러한 학계의 연구 경향에 따라, 18세기의 영조와 정조의 탕평 정치 시기 역시 자연스레 재평가되기 시작했다.

1990년에 발표된 이태진의 연구가 대표적으로, 그는 ‘성 밖을 나온 군주’로 정조를 묘사하면서 조선 역사에서 정조 정치의 새로운 측면을 강조하였다. 이는 수많은 능원 행차와 격쟁수용을 통해 볼 수 있는 정조의 ‘애민’의식을 설명한 것으로, 정조의 장용영, 규장각, 초계 문

신제의 실시와 더불어 정조 정치가 갖는 개혁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이었다. 이태진은 이러한 정조의 뛰어난 개혁 능력과 함께, 탕평을 봉당 간의 갈등 극복의 결과이자 개혁의 성과로 해석하면서, 18세기를 눈부신 조선의 르네상스의 세기로 해석한다. 상업 자본주의가 싹트고 학문적, 예술적인 발달이 이루어졌으며 조선 초 세종 시기의 부활을 꿈꾸고자 한 정조의 시기가 유럽에서의 르네상스에 비견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정조의 개혁은 '유학적 절대 계몽군주'로 불릴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유럽의 절대 왕정 시기 시행된 군주권 강화, 상업 진흥 조치와 같은 봉건적 모순 해소의 노력들이 정조의 시도와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러한 정조의 개혁은 그 기반에 탕평의 이념이 있음을 강조하여 탕평군주로서의 면모를 적극적으로 부각하였다.

이와 같은 학계의 성과는 1993년도에 출간된 소설 『영원한 제국』의 성공에 힘입어 대중들에게 전해졌고, 이는 사람들이 정조를 조선 후기의 위대한 왕으로 인식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였다.¹⁾ 그 이후로도 정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끊임없이 재탄생 되었으며 결국 사람들이 정조와 그의 시대를 존경하고 동경하게 되는 인식이 조성되었다. 특히 정조 열풍, 즉 '정조 신드롬'이라는 사회적 현상이 1990년대에 두드러졌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1996년에는 kbs에서 정조 시대만을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가 1월부터 10월까지 무려 6차례 방영된 사실에서 1990년대의 정조 열풍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짐작해볼 수 있다.²⁾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정조는 학계에서나, 대중적으로나 그저 가련한, 혹은 효심이 많은 왕 정도로 표현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정조는 1990년대에 이르러 '정조대왕' 혹은 '유교적 절대계몽군주'로 불리게 되는데, 이는 1990년대라는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가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정조에게 투영되어 나타난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³⁾ 1990년대라는 시대는 오랜 군부 독재가 끝나고 92년도 김영삼 대통령이 처음으로 문민정부를 표방한 시기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정조의 부상은 문민 시대에 어울리는 지도자를 발굴하고자 하는, 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은근한 기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정조에 대한 학계의 긍정적 재평가가 온전히 근거 없이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정조 당대의 기록들만 보더라도 자신들의 시대가 조선의 태평성대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정조의 죽음 직후에 정조가 끊임없이 성군이자 후대의 이상적 모델로 소환되는 부분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다.⁴⁾ 이는 앞서 언급한 정조의 개혁들이 당시의 시대적 과제를 일정 부분 해결하였고, 정치적, 문화적으로 유의미한 성과 및 발전을 이루어 냈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정조가 특히 1990년대 이후 '개혁', '계몽', '르네상스' 등의 키워드들로 수식되면서, 그 위상이 급부상하게 된 현상에는 분명 1980년대 이후 축적된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의 반영이자, 시대적 요구가 맞물려서 발생한 일종의 신드롬 현상임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통해, 개혁 군주 정조에 대한 이미지 형성이 학계의 연구 성과의 반영이자, 시대의 요구가 점철된 결과임을 어렵지 않게 확인해볼 수 있었다. 정조의 정치사에 대한 이해가 근대 계몽군주에 비견될 수 있는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부각시킨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필요성이 식민사관의 극복이었던, 1990년대 한국 사회에 대한 개혁의 요구였든지 간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방식으로 정조의 시대를 읽어낸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1) 이경구, 「총론 : 새롭게 보는 정조와 19세기」, 『역사비평』, 2016, 107쪽.

2) 김백철, 「1990년대 한국사회의 정조신드롬 대두와 배경」, 『국학연구』 18호, 2011, 28쪽.

3) 김백철, 같은 논문, 35쪽.

4) 노대환, 「19세기 정조의 잔영과 그에 대한 기억」, 『역사비평』, 2016, 176-187쪽.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고에서는 정조의 ‘탕평’ 분석을 통한 ‘정조 다시보기’를 진행한다. 정조의 대표적 정치 방식인 탕평의 용례 분석을 통해 탕평의 성격과 작동 방식의 실제적 모습에 대해 정립하고자 한다. 이는 결코 정조의 과오를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그에게 투사된 다양한 욕망들을 걷어내어 18세기 인물로서의 정조를 재조명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정조시기 탕평에 대한 평가에는 조화와 공존의 정조 리더십에 대한 후대의 선망이 짙게 깔려있다는 점에서, ‘탕평군주’, 혹은 ‘조화와 공존을 추구한 정조의 리더십’의 수식어로서의 탕평에서 벗어나, 18세기 정조시대의 흐름 안에서 탕평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II. 『정조 실록』에 기록된 ‘탕평’의 용례

‘탕평 정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봉당 정치에서 이어진 숙종 시기 한국 정치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형태이자 이념을 의미한다. 영조가 새로운 정치이념으로 적극 표방하고 정조가 계승한 탕평의 개념은 봉당 간 갈등의 타파 및 왕권 강화를 목표로 18세기 정치담론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였다. 탕평은 기본적으로 봉당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봉당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이가 봉당의 출현을 경계하며 ‘파봉당설’을 제시한 것에서 탕평의 이념적 기원을 찾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은 숙종 대에 박세채에 의해서 ‘탕평론’으로 본격적인 형태를 지니게 된다.⁵⁾ 이후 즉위한 영조는 박세채의 탕평론을 기반으로, 이전 시기 한국의 폐단을 극복하고자 자신의 의도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왕권을 강화하는 방식의 조제 탕평을 추구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척신세력의 등장과 노론의 명분이 강조되었다는 측면에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고 정조는 그 한계를 인식한 상태로 왕위에 오르게 된다.

이러한 한계는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선왕의 탕평을 계승하되, 혼돈의 탕평이 아닌 의리 탕평을 펴겠다는 선언을 하게 만드는 배경이 된다. 정조의 ‘의리 탕평’은 탕평과 의리가 서로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으로 사사로움을 버리고 공적인 가치가 의리 결단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임의리, 임오의리 등 의리와 관련한 정치적 쟁점을 통해 봉당 간의 갈등을 타파하는 탕평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조의 탕평은 영조의 조제 탕평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탕평의 모습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학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정조의 탕평이 봉당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 봉당 단위의 정치가 활발히 전개되도록 두었다고 보고, 이를 통해 조선 후기 봉당 간의 특유의 공존 방식이 작동되었다는 것이다.⁶⁾ 이는 정조가 황국을 세우면서 당파를 막론하고 의리를 기준으로 탕평 정치를 개진하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과연 그러했을까? 영조의 조제 탕평을 극복했다는 프레임에서 정조의 탕평을 해석하고자 한 것은 아닌지, 탕평은 어떤 구체적 현실 속에서 작동하고 있었는지 비판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탕평’을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정조실록에는 총 37건의 기사가 존재한다. 이 중 정조 행장과 정조 대왕 천릉 지문을 제외하면 총 35건의 기사에서 ‘탕평’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조 시기 탕평이 사용된 기사가 343건이나 되는 것에 비하면 적은 숫자지만, 그럼에도 조선이라는 전체 시기 속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정조의 시기에도 영조와 마찬가지로 탕평이라는 가치가 당시 정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한편 35건의 기사에서 탕평 언급 횟

5) 김태희, 「정조 탕평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2, 9쪽.

6) 최성환, 「조선 후기 정치의 맥락에서 탕평군주 정조 읽기」, 『역사비평』 15호, 2016, 14쪽.

수를 살펴보았을 때, 총 54건의 탕평이 사용되었으며 이 중 정조가 정조 '즉위년'에만 '16번'을 언급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만큼 정조가 앞으로 자신의 정치에 있어 선대의 주력 정치이념이었던 탕평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조의 탕평 개진이 즉위년에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탕평이 정조대의 정치를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되는지에 의문을 제기해 볼 수도 있다.

발화 대상을 살펴보면 54건의 탕평 언급 중 정조가 35건, 그 외 신하들이 19건으로 정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역시 알 수 있었다. 신하들이 사용한 19건 중 주체가 14명이라는 점은 한 인물이 특별히 많은 탕평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며, 이는 정조가 실록 안에서 압도적으로 탕평을 많이 발화하는 주체였음을 보여준다. 총 54건의 탕평 활용은 왕과 신하들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었는데, 정조의 경우 '선대왕 칭송', '설득', '측근 세력 비호', '탕평의 의미 밝히기'의 맥락에서 탕평을 사용했으며, 신하들의 경우 '선대왕 칭송'과 '변명', '탕평 비판', '기타' 등으로 대화를 구성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정조의 '선대왕 칭송'은 선대왕 영조의 업적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정조와 신하 모두에게 나타난다. 주로 선왕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묘사하면서 그 뜻을 계승한 자신의 권위 역시 타당함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설득'의 맥락은 정조가 신하들을 설득하기 위해 탕평을 사용한 것으로, 신하들이 관직을 사양하거나 부름에 응하지 않을 때 탕평을 근거로 조정에서 나올 것을 권유하는 목적을 지닌다. '측근 세력 비호'의 맥락은 탕평이 신하들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활용된 흐름이다. 채제공으로 대표되는 정조의 측근 세력들이 공격받을 경우, 정조가 탕평을 근거로 그들을 보호하고 역으로 공격 세력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탕평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탕평의 의미 밝히기'의 경우 탕평의 뜻과 그 의미를 정의하는 것으로, 정조가 자신의 탕평이 영조의 탕평을 계승한 정치 형태이자 이와는 분별되는 지향점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낸다. 탕평의 가치를 논리적으로 풀어내어 정조의 탕평이 지닌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신하들의 맥락에서 보이는 '자기 변명'은 자신의 행동이 탕평책의 기조에 어긋나지 않음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탕평이 지닌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 역시 이에 참여하고 있음을 피력하는 모습으로, 탕평의 권위를 자신의 주장에 투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편 '탕평 비판'의 경우 탕평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으로, 주로 영조 시기의 탕평 정책이 지녔던 문제점을 겨냥하는 것이다. 정조의 탕평 역시 일부 지적하는 모습이 확인되나 대개 영조의 탕평 정치가 지녔던 기계적인 당파 보합 인사 정책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룬다. 마지막으로 '기타'의 맥락은 위의 맥락에 포함되지 않는, 탕평 시기 이전과 이후를 묻는 사실 여부로 사용된다.

이러한 다양한 모습의 탕평은 다시 또 크게 두 가지 맥락으로 분류해서 이해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영조 탕평의 계승과 극복을 위한 맥락'이며, 다른 하나는 '측근 세력의 비호를 위한 탕평의 맥락'이다. 이는 탕평이 당파 간의 화합을 강조하는 이념으로서 영조 시기 탕평을 계승하고 그 한계 극복을 추구하는 동시에, 발화자가 탕평이 지닌 논리를 역이용하여 자신의 측근 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로 함께 사용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를 정리했을 때 다음의 <표 1>과 같으며, 다른 항목과 중첩되는 경우 각 표에 중복하여 날짜를 작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영조 탕평의 계승과 극복을 위한 맥락'과 '측근 세력의 비호를 위한 맥락'에 해당하는 『정조 실록』속 탕평의 용례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표 1>

발화 주체	기사 년도	날짜	발화 맥락
정조 (35회)	즉위년	4월 15일(병진)	선대왕 칭송
		5월 16일(병술)	선대왕 칭송
		9월 22일(경인)	선대왕 칭송
	정조 2년	5월 2일(신유)	선대왕 칭송
	정조 3년	12월 20일(경오)_1	선대왕 칭송, 측근세력 비호
	정조 4년	2월 15일(갑자)	선대왕 칭송, 신하들 설득
		10월 21일(병인)	선대왕 칭송, 신하들 설득
	정조 6년	1월 30일(정묘)	측근세력 비호
	정조 8년	4월 4일(무자)	측근세력 비호
		7월 7일(경신)	선대왕 칭송
		12월 8일(기축)	선대왕 칭송
	정조 10년	10월 24일(갑자)	신하들 설득
	정조 11년	4월 8일(을사)	선대왕 칭송
	정조 12년	1월 22일(을유)	측근세력 비호
		2월 6일(기해)	측근세력 비호
		12월 5일(임진)	측근세력 비호
	정조 13년	7월 1일(을유)	측근세력 비호
		9월 27일(경술)	신하들 설득
	정조 14년	5월 12일(임진)	측근세력 비호
	정조 16년	11월 6일(신축)	선대왕 칭송, 측근세력 비호
	정조 22년	9월 24일(갑신)	신하들 설득
신하 (19회)	즉위년	9월 22일(경인)	선대왕 칭송, 기타
	정조 1년	2월 4일 (경자)	탕평 비판
	정조 3년	9월 28일(기유)	선대왕 칭송
		12월 20일(경오)_ 2	선대왕 칭송
	정조 7년	10월 21일(기묘)	선대왕 칭송
	정조 8년	6월 5일(무자)	기타
		11월 21일(임신)	자기 변명
	정조 9년	5월 22일(경오)	탕평 비판
	정조 11년	2월 20일(무오)	탕평 비판
		4월 11일(무신)	선대왕 칭송, 탕평 비판
	정조 14년	3월 3일(계미)	기타
		9월 19일(병신)	기타
	정조 16년	10월 4일(기사)	자기 변명
	정조 19년	11월 24일(신미)	기타
	정조 23년	1월 18일(정축)	기타

III. 영조 탕평의 계승과 극복의 맥락에서 발화된 탕평

영, 정조시기 ‘탕평’은 봉당의 존재가 조선 후기 정치운영의 방식으로 자리 잡은 현실에서 군신 모두가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성취되어야 할 정치이념으로 공유되고 있었다. 소인의 당을 역적으로 몰아 궤멸시켜 버리는 환국 정치의 폐단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정치적 과제임을 공통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정조는 즉위 직후부터 탕평을 영조의 주된 치적 중 하나로 손꼽으면서, 자신 역시 탕평의 기치를 계승하고 있음을 천명하였다. 다음의 인용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사용된 탕평의 예이다.

A-1. “선대왕의 사업과 실적은 곧 균역(均役)·탕평(蕩平)·준천(濬川)이다.”⁷⁾

A-2. “우리 선왕(先王)께서 50년 동안 탕평(蕩平)하신 성대한 교화를 계술(繼述)할 수 있고, 또 내 일념(一念)으로 보합(保合)하려는 고심(苦心)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니, 경은 나와서 베풀어 함께 우리 국가를 안정시키라.”⁸⁾

사료 A-1은 선대왕의 사업과 실적을 집약하는 키워드 중 하나로 탕평을 꼽고 있다. 이를 통해 탕평이 정조가 계승해야 할 주요 정치적 업적이자 과제임이 즉위 직후부터 분명히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2는 당시 평안도 관찰사 이휘지를 우의정에 제배하였으나 이휘지가 부름에 응하지 않자 정조가 이휘지에게 하교를 내리는 상황이다. 탕평이 영조의 권위를 높이는 장치로 사용되고, 정조 자신이 이를 계승하고 있음을 천명하면서 영조가 주창한 탕평의 권위를 빌어 대신을 조정에 나오도록 설득하는 면모가 나타난다.

신하들 역시 영조의 탕평이념을 계승되어야 할 당위로 인정하고, 정조의 탕평계승 의지 표명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음에 인용된 『일성록』의 기록은 정조가 영조의 탕평을 계승하여 정치의 정상화를 이루었다면서 정조를 추켜세우고 있다.

A-3. “선대왕(先大王)께서 50년 간 고심하신 것은 오직 붕당(朋黨)을 없애고 모두 탕평(蕩平)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전하께서 지극한 정성으로 그 뜻을 계승하시어 (……) 온 조정의 신하들을 모두 전하의 교화 속으로 돌아오게 하셨으니, 누가 감히 성덕(聖德)을 흠양하여 전하의 뜻을 따르지 않겠습니까.”⁹⁾

사료 A-3은 영의정 김상철이 상참에서 정조에게 간하는 중에 발언한 것으로, 신하들 역시 정조가 영조의 업적인 탕평을 이어 받았음을 인정하고 그 가치에 동의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정조시기 왕과 신하 모두 자신들의 정치적 과제가 영조의 탕평에 대한 계승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조는 영조대 탕평에 부여된 권위를 지속, 확장시키면서 그 권위를 자신에게 투영시키고자 했고, 신하들 역시 그 의미를 분명히 인식하며 정조의 탕평 정치가 정당성을 지님을 인정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영조의 탕평 계승 의지와 동시에 영조의 정치현실 속에서 작동된 탕평에 대한 비판의 목적으로 탕평이 이야기되고 있었다. 다음의 정조 1년 2월의 기사에서는 공조판서 홍낙순이 영조대 시작된 탕평으로 인한 폐단을 지적하고 있다.

B-1. “탕평(蕩平)이 크게 시행되면서부터 의리가 밝지 못하여 사유(四維)가 신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도도(滔滔)하게 단지 목전의 이해(利害)만 알 뿐 군신(君臣)의 분의를 모르기 때문에 말류(末流)의 폐단이 이처럼 극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¹⁰⁾

사료 B-1은 탕평책 때문에 의리가 밝지 못하게 되고, 악을 방지하지 못하게 됨을 꼬집으면서 탕평 정치를 은근하게 공격한다. 해당 기사는 홍인한과 정후겸을 역률로 다스리는 중 드러

7) 『정조실록』, 권 1, 00년 05월 16일.

8) 『정조실록』, 권 9, 04년 02월 15일.

9) 『일성록』, 정조 04년 01월 10일.

10) 『정조실록』, 권 3, 01년 02월 04일.

난 윤약연, 홍상간 일당의 모반 사건과 관련이 있다. 윤약연 등은 홍인한의 일당이었는데, 당시 정조의 신임을 받고 있던 홍국영을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정조의 친국으로 그 공모가 드러나 실패하게 된다. 이에 곧바로 윤약연 무리를 유배하고, 다음 달 홍인한과 정후겸을 사사하는 모습에서 정조의 단호한 대응을 확인할 수 있다. 정조가 세손시절, 정조의 왕위 계승을 방해한 홍인한과 정후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자 정조를 세손시절부터 보호한 공료(홍국영)에 대한 보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역률 사건 해결 이후, 정조는 어쩌서 이러한 흉역이 빈번하게 발생하는지를 공조판서 홍낙순과 논의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사료 B-1이다. B-1의 화자인 홍낙순은 홍국영의 큰아버지로, 정조가 여전히 남아있는 역적들의 처분 문제에 대해 그에게 물어보자 그는 ‘탕평’이 모든 역모 세력들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 때의 탕평은 정조의 탕평 자체를 겨냥하기 보다는 영조대 탕평 하에서의 ‘너그러운 처벌’을 지목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다. 사료 B-1 이후 이어지는 대화에서 홍낙순은 탕평이 크게 시행되면서부터 의리가 밝지 못하다는 사실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비유를 제시하는데, 여기서 그의 발화 맥락을 자세히 추측해볼 수 있다.

B-2. “옛날 우리 인조(仁祖)께서 반정(反正)하신 뒤 (……) 원훈(元勳)들이 ‘이미 거괴(巨魁)를 베었으면 되었지, 지엽(枝葉)의 무리들을 다 죽일 것이 있겠는가?’ 했는데, 이 때문에 대북의 사람들 가운데 지금까지 반족(班族)이 있게 된 것입니다. (……) 비유컨대 사람의 마음은 큰 가뭇물이 들었을 때의 초목(草木)과 같아서 십분 말라 비틀어졌을 적에 한 줄기 비가 내리게 되면 그 희열이 전보다 갑절이나 더한 법입니다.”¹¹⁾

홍낙순은 위의 비유를 통해 반역의 원인들로 인조반정 이후 처리되지 않은 ‘지엽의 무리’들을 꼽고 있다. 이 때 탕평은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한 줄기 비’로, 이러한 반족의 무리들이 움직일 기회를 주기 때문에 빈번하게 역모가 발생함을 지적한다. 따라서 그는 위의 비유를 통해 탕평이 크게 시행되면서부터 오히려 의리가 희생되어 각종 폐단이 극대화되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영조 시기의 탕평에 대한 항의로서 당시의 지엽의 무리들이 해결되지 않아 지금의 폐단에 이르렀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영조의 탕평에 대한 또 다른 비판적인 관점으로는 탕평이 단순히 관리를 조제 보합하여 정치의 질을 저해하고 있다는 부정적 견해가 있다. 영조의 조제 탕평이 형식적인 인사 정책으로서 당파를 섞어 놓기만 했다는 현대 학계의 평가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정조가 ‘탕평의 뜻’에 따라 한림을 추천하기를 명하자 서명선이 반박하는 아래의 내용에서 이를 알 수 있다.

B-3. “한림은 예로부터 청준(淸峻)한 직임이었는데, 탕평(蕩平)을 한 뒤로는 그로 인해 난잡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분배하여 포치(布置)하면, 이는 공도(公道)가 아닙니다.”¹²⁾

사료 B-3은 탕평이 시행된 이후 한림의 직임이 난잡해졌다는 내용으로, 탕평에 대한 서명선의 생각이 드러난 기사이다. 서명선에 따르면, 한림은 “응당 으뜸가는 사람들” 택해야 하는데 탕평 조치를 시행한 뒤 당을 분배하여 등용하게 되었고 이에 한림의 직임이 난잡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본 기사 역시 시기적으로 정조 초년이며, 한림의 직임을 탕평의 뜻에 따라 당을 분배하여 임명한 것은 영조 시기 시작된 일이므로 서명선의 탕평 비판 역시 영조 시기의 탕평

11) 『정조실록』, 권 3, 01년 02월 04일.

12) 『일성록』, 정조 03년 11월 30일.

을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조는 각 붕당에서 내세우는 의리나 시비를 모두 배척하고 각 붕당의 온건파에게만 권력을 주어 탕평정치를 운영했다.¹³⁾ 또한 관료를 선발 할 때 반드시 당파별로 안배해서 인사를 추천할 것을 명하고 다른 당파의 인물들이 서로 한 조를 이루어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인사원칙을 적용했다.¹⁴⁾ 이렇듯 각 당의 강경파인 준론을 등용하지 않고 탕평에 긍정하는 완론만을 당파별로 분배하여 기용했다는 점에서, 학계는 영조의 탕평을 당파의 기계적 조제 방식으로 운영된 조제 탕평이자 완론을 중시한 완론 탕평으로 평가하고 정조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 진정한 탕평 군주라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 정조는 이러한 형식적 조합으로 발생하는 탕평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신이 시행하는 탕평은 이를 극복한 탕평이자 진정한 의미의 탕평임을 반복적으로 언급한다. 이는 정조의 '탕평의 의미 밝히기' 맥락에서 주로 등장한다. 탕평이 무엇인지 그 이상과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에 동조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 특히 자신의 탕평이 영조와는 다른 원칙을 적용한 탕평임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정조가 영조와는 변별됨을 강조한다. 이는 학계에서 정조 시기의 탕평이 영조 탕평의 극복의 결과이자 영조와는 변별되는 '의리 탕평'으로 평가받는 근거가 되는데, 다음의 기사들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C-1. "탕평은 의리에 방해롭지 않고 의리는 탕평에 방해롭지 않은 다음에야 바야흐로 탕탕 평평(湯湯平平)의 큰 의리라 할 수 있다. 지금 내가 한 말은 곧 의리의 탕평이지, 혼돈의 탕평이 아니다."¹⁵⁾

C-2. "선대왕의 탕평 정치가 융성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당시에 받들어 보좌하는 신하가 능히 성의(誠意)를 우러러 체득하지 못하고 오직 미봉책(彌縫策)으로 일삼으며, 심지어는 하나의 정사와 하나의 의망(擬望)에도 비례하여 배치하고 (……) 당시에 받들어 돕던 신하들이 실로 성의(聖意)를 우러러 체득하지 못하고 (……) 때문에 행하여 온 지 오래지 않아서 차츰 더욱 폐단이 생기고 다만 족히 척리와 권간(權奸)이 정치를 혼란시키고 사람을 구속시키는 바탕으로 삼아 왔다. 아! 탕평이란 곧 편당(偏黨)을 버리고 상대와 나를 잇는 이름인데, 세상에서 전하는 바 '탕평의 당이 옛날 당보다 심하다.'는 말이 불행하게도 가까웠다. (……) 깊이 이 폐단을 알았으니 그욕이 생각하기를, '결코 선악을 혼합하고 시비를 같이하는 것이 탕평의 결과가 될 수 없다.'고 여겨왔던 것이다. (……) 지금 이후로 무릇 나를 섬기는 조정 신하는 노론이나 소론할 것 없이 모두 대도(大道)에 나오도록 하라. 아! 그대 대소 신료들은 또한 '노·소' 두 글자를 마음에 싹틔우거나 입에서 꺼내지 말 것이며, (……) 치도(治道)의 요점은 심정을 펼쳐 유지하며 내가 두 번 말하지 않을 것이니, 경 등은 모두 알라."¹⁶⁾

사료 C-1은 정조 즉위년, 도목정사(都目政事)¹⁷⁾ 거행을 논의하면서 정조가 편당을 비호하는

13) 김용흥, 「조선의 정치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 탕평론, 탕평책, 탕평 정치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2016, 561쪽.

14) 안효성, 「正祖와 皇極蕩平政治의 公共性」, 『철학과 문화』 29호, 2014, 98쪽

15) 『정조실록』, 권 1, 00년 05월 16일.

16) 『정조실록』, 권 2, 00년 09월 22일.

17) 해마다 음력 6월과 12월에 이조와 병조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리의 치적을 종합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리를 좌천 또는 파면을 시키는 일.

짓을 일삼은 송형중, 성윤검 등에 대한 처분을 내리고 그 이념적 기반으로 탕평을 내세우며 탕평의 정의를 설명하는 기사이다. 이를 통해 정조는 자신의 탕평이 영조 시기의 혼돈의 탕평과는 다른, 붕당 간의 의리를 중시하는 의리의 탕평임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 이러한 정조의 탕평은 완론과 준론을 아우르고 의리를 기준으로 정치 철학적 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인사정책에 해당했던 영조의 탕평을 극복했다고 볼 수 있다. 사료 C-2는 정조가 직접 자신의 정치가 영조의 탕평을 계승한 형태이자 동시에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모습으로, 자신의 탕평은 이를 극복한 것이라 규정하는 내용이다. 정조는 탕평이 “선악을 혼합하고 시비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면서 각 당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제시한다. 특히 사료 C-2의 윤음 전체에서, 정조는 탕평이란 편당을 제거하고 남과 나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라 규정하면서 왕도정치의 핵심이 ‘공정성’에 있음을 강조한다.¹⁸⁾ 즉 갈등 국면에서 누구의 편도 들지 않은 채 의리를 중심으로 공정하게 시비를 가리고 중재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탕평의 맥락은 정조가 당파 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논리 간의 화해 속에서 평화를 추구하여 영조의 한계점을 극복했다는 학계의 평가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탕평을 통해 영조를 계승하고, 한편으론 극복하면서 정조가 영조와는 또 다른 의리 탕평이라는 정치적 레토릭을 만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정조시기의 탕평이라는 정치적 이념 형성이 단순하게 정치적 구호로서만 사용된 것이 아닌, 계승과 비판, 극복을 거쳐 복합적으로 새롭게 형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IV. 측근 세력의 비호를 위해 발화된 탕평

3장에서 정조의 탕평이 영조의 탕평을 계승 및 극복한 형태였음을 실제 기록을 통해 살펴 보았다면, 본 4장에서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탕평 발화 맥락을 살피고자 한다. 정조가 ‘탕평’을 공존과 조화라는 의미보다 수사학적 도구로 활용하여 자신의 ‘측근 세력을 비호’하는 데에 탕평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탕평의 권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측근 세력을 형성했다는 사실은 당파 간의 공존과 논리 속의 화합을 모색한다는 탕평의 궁극적 목적에 반하는 역설적인 상황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정조의 측근 세력에는 ‘채제공’이 대표적으로, 숙종 이래 배제되어온 남인 계열의 인사가 주로 해당했다. 노론이 주도하는 정국에서 이들의 정치적 입지는 당연하게도 위태로웠으며 이에 정조의 정치와 정책을 적극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정조와의 관계는 정조에게 있어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는 효과를 만들었고, 남인은 정치 무대로의 복귀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따라서 정조는 자신의 지지 세력을 확보 및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공격과 비판을 방어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반대 세력을 탕평을 근거로 내치는 모습을 보인다. 주로 채제공을 둘러싼 논의에서 확인되는 상황은 다음의 인용문에서 살펴볼 수 있다.

D-1. “오늘 이희판의 소로 말하면 그 내용이 전관을 불서 하라고 한 명을 환수하기를 청한 데 불과하지만, 그 조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소인의 세력이 미약하지 않고[豕非羸]’ ‘연약하던 것이 굳어지려 한다.[霜將氷]’고 할 수 있다. (……) 이희판은 먼 곳으로 귀양 보내고, 원소(原疏)는 도로 돌려주어 기강을 진작시키고 탕평(蕩平)에 힘쓰는 뜻을 보이라.”¹⁹⁾

18) 안효성, 같은 논문, 98-103쪽.

D-2. “너는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감히 항거하면서 지시를 따르지 않는단 말인가. 이런 자를 대수롭지 않게 보고 범연히 대한다면 내 유독 (……) 탕탕평평(蕩蕩平平)이라고 써 붙인 당액(堂額)에 부끄럽지 않겠는가. (……) 이 대신을 등용한 이상 지금 그를 흔들고 꼬집는 데 대하여 만약 엄하게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방지하고 뒷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겠는가. 정언 조진정(趙鎭井)을 체차하고 이어 귀양 보내는 처벌을 적용하라.”²⁰⁾

위의 내용들은 정조가 탕평을 근거로 정조에게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한 신료들을 처벌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정조에게 반대되는 의견이란, 채제공을 우의정으로 제수한 것에 대해 노, 소론의 극심한 반발이 일어난 정조 12년의 사건을 의미한다. 사료 D-1은 이희관이 윤시동을 탄핵한 이승운을 처벌할 것을 상소하자 정조가 비답한 내용이다. 윤시동은 형조 판서를 지낸 노론 계 인물로, 당론을 자주 주장하여 파직과 복직을 일삼은 파란 많은 생애를 보낸 인물이다. 그는 채제공의 우의정 발탁에 채제공 탄핵을 극렬하게 주장하다 불서용의 명을 받고 귀양을 가는데, 이후 복직된다. D-1은 지평 이승운이 다시 윤시동을 파직할 것을 상소하자 이희관이 이승운을 처분할 것을 정조에게 간하는 내용인 것이다. 정조는 이희관을 소인이라고 비꼬며 이희관의 처벌이 탕평에 힘쓰는 뜻임을 분명하게 전한다. 정조가 남인인 채제공을 공격한 노론 윤시동을 처벌하고, 윤시동을 두둔한 이희관을 죄 주었다는 점을 통해 남인인 채제공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탕평의 균형을 이룩했다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조는 자신이 이미 결정을 내린 것이기에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는 하교를 내리고, 이것이 탕평에 힘쓰는 것이라 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모든 상소를 불태우거나 별주었다. 이러한 탕평의 모습은 측근 세력의 비호로서 사용된 것으로, 붕당 간의 공존으로서의 탕평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D-2의 기사는 송덕상, 김하재 등 여러 역적들에 관한 죄 탄핵과 함께, 역시 ‘채제공’에 대한 공격을 담은 정언²¹⁾ 조진정의 상소에 대해 정조가 정색을 하고 조진정을 귀양 보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조 14년 1월, 이번엔 좌의정에 제수된 채제공은 계속해서 노, 소론의 관원들에게 공격당했고 조진정은 그 중 한 명이였다. 조진정이 주장한 채제공의 죄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역적과 관련되었다는 죄와 더불어 정승의 자리에 있으면서 공의를 무시하고 도당록 추천에서 최현중과 권평을 추천했다는 점을 극렬하게 비판하였다. 최현중과 권평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채제공이 “신과 친근한 사람 중에 신의 해독을 입지 않은 사람이 없다”²²⁾고 말한 부분에서 그들이 채제공 계열의 사람임을 추측할 수 있었다. 이는 결국 앞선 D-1의 사료와 마찬가지로 정조가 채제공을 두둔하며, 그를 공격하는 세력을 ‘탕평’을 이유로 봉쇄해버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대사간 심환지가 조진정의 귀양을 풀어 주기를 상소하였으나 정조는 오히려 심환지의 벼슬을 깎는 규정을 적용했으며 자신의 판결에 대한 도전을 탕평을 근거로 모두 묵살한다.

한편 이러한 정조의 탕평 활용에 대한 반발로 신하들은 오히려 자신의 행동이 탕평에 부합함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탕평에 부여된 정치적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권위를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하는 근거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정조의 행보가 진정한 탕평이 아니며

19) 『정조실록』, 권 27, 13년 07월 01일.

20) 『정조실록』, 권 30, 14년 05월 12일.

21) 조선시대 사간원의 정6품 관직

22) 『정조실록』, 권 30, 14년 05월 22일.

자신의 행동이 탕평 정책에 더 가까움을 주장하는 것으로, 군신이 탕평의 권위를 둘러싸고 경쟁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다음의 기사는 신하들이 정조와는 다른 복합적인 측면에서 탕평을 활용하는 예시이다.

E-1. “서로 조심하고 서로 협조하지 못한다고 신을 책망하셨는데 신이 비록 보잘것 없지만 무엇 때문에 눈에 띄이게 남다른 주장을 내세워 탕평정책을 외면하겠습니까. 그는 오익환(吳翼煥)과 죽음을 맹세한 벗이자 또 역적 신기현(申驥顯)과는 피로 뭉친 무리입니다. (……)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개탄스러운 마음이 없겠습니까.”²³⁾

사료 E-1은 시파에 가까웠던 판부사 박종악이 채제공을 공격한 것에 대해 정조가 박종악의 의도를 의심스럽게 여기자 박종악이 자신의 뜻이 탕평정책을 외면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그는 사료 전체 맥락에서 채제공에 대한 비판이 정당하며 채제공의 죄를 토죄하는 것을 막는 정조의 행동이 개탄스럽다고 성토했고 있다. 탕평을 근거로 행해지는 정조의 압박을 신하들은 마찬가지로 탕평을 통해 방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정조가 직접 탕평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자신의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신하들을 압박하는 장면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아래의 지문이 대표적으로, 윤영희 사건으로 인해 서유린이 채제공의 죄를 극렬히 처벌할 것을 주장하자 정조가 오히려 서유린을 파직하고, 이에 반발하는 도승지 윤이상과 대사간 이집두를 함께 체직하는 모습이다.

F-1. “윤이상(尹履相)이 아뢰기를, “서유린을 파직하라는 전교를 신이 부득이 받아쓰기는 했지만 결코 반포는 못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승지가 어찌 감히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역시 체직하라.” (……) 대사간 이집두(李集斗)가 아뢰기를, “신이 기현과 영희를 맨 먼저 토죄했던 사람입니다. (……) 또 며칠 전에도 현직으로 대각에 나아가 아뢰려고 하였으나 윤영희 세 글자가 이미 금령(禁令)에 걸려 있어 또 묵묵히 물러나오고 말았습니다. 지금 대청(臺廳)으로 나가서 영희에 관한 문제를 아뢰려고 하니 엎드려 바라건대 금지의 명을 빨리 거두어주소서.” 하니, 체직하도록 명하였다.”²⁴⁾

사료 F-1에서 중점이 되는 윤영희 사건은 당시 조흘강의 시험관이었던 남인 윤영희가 역적의 아들을 시험에 통과하게 도와주었다는 혐의를 받아 관원들의 공격대상이 된 사건이다. 정조는 윤영희의 죄를 토죄하는 상소문 속에서 윤영희가 통과시킨 역적의 아들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관원들이 말을 지어낸다고 비판하며 양사 관원들을 모두 유배 보내는 조치를 취한다. 그런데 사관이 실록에 쓰기를,

F-2. “역적의 자식은 곧 적신 신기현의 아들인 신집이다. 이보다 앞서 상이 상소를 올릴 때 금지사항을 만들어 기현의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무시한 자는 수문장이 받아들이지 말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윤영희를 논박한 여러 신하들이 감히 역적의 자식 이름을 쓰지 못한 것이다.”²⁵⁾

23) 『정조실록』, 권 36, 16년 10월 04일.

24) 『정조실록』, 권 36, 16년 10월 04일.

25) 『정조실록』, 권 33, 15년 08월 30일.

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정조가 ‘금령’을 설정하여 논의를 원천 봉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지점이다. 한편 윤영희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자 정조는 윤영희 사건을 무죄로 선언하고 윤영희에 대한 금령을 또한 설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유린이 그들의 죄와 함께 배후로 지목되는 채제공을 극렬 성토하자 정조가 당상관 서유린을 파직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사료 F-1은 서유린의 파직에 대사간 이집두, 승지 윤이상이 부당함을 제기하다 역시 체직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윤영희와 신기현 모두 채제공의 후원을 받는 남인 계열이었다는 점에서, 언급된 일련의 사건들은 근본적으로 채제공의 정승 임명에 대한 발작적인 노, 소론의 경계 의식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조 5년에서 8년 사이의 공격으로 잠시 물러나 있었던 채제공은 정조 10년 평안 병사에 임명된 이후 정조 12년 우의정으로 돌아온다. 신료들의 극심한 반대가 이어졌고, 이에 정조는 탕평을 근거로 자신의 측근인 채제공을 보호하고 해당 사건은 금령시하며 반대 인사들을 모두 유배시키는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필사적 사명에 가까운 정조의 채제공 보호는 채제공이 정조의 탕평 기치에 적합한 인사였기 때문이다. 그는 남인 계열에, 영조 시기 사도세자 폐위를 눈물로 극렬 만류했으며, 무엇보다 정조 정치의 적극적 지지자였다. 따라서 정조에게 있어 채제공의 보호는 탕평을 이루기 위해 중요한 과제이자 동시에 왕권 강화의 핵심 요소였다. 그렇기에 채제공의 죄를 성토하고 그를 비판하는 공격들을 모두 금령으로 지정 하고, 소를 태워버리며, 상소하는 인물들을 귀양을 보냄으로서 그를 보호한다.

채제공의 죄에 대한 진실 공방을 따지고 사건의 잘잘못을 나누는 것은 현대 역사가에 불필요하기에, 노론 세력이 ‘왜’ 채제공을 그렇게까지 비판 했는지가 본 사건에서 중요하다 볼 수 있다. 노론 인사들의 입장을 이해해야 위의 사건들의 발생 원인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인 세력이 걸고 있는 핵심 당론은 ‘사도세자의 신원’이다. 그런데 이는 당시 집권자인 노론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의제였고, 따라서 노론이 일망타진 될 수 있는 핵심 문제였다. 그렇기에 노론은 남인의 수장인 채제공에 대한 견제가 주요 목표였으며 이에 채제공을 둘러싼 끊임없는 갈등이 형성되었다. 결국 노론의 입장에서 당의 생존을 위해 남인이 숙종 이래 역적의 당임을 계속 상기시키고 왕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정조는 ‘탕평’을 위해 이러한 갈등 속에서 채제공을 보호했으나, 그 방법은 앞서 확인한 것과 같이 상당히 억압적이었다. 금령을 설정하여 정조와 반대되는 입장을 침묵시키려는 조치는 갈등의 조정보다는 갈등 자체를 봉쇄하는데 가까웠고, 이 모든 과정이 탕평으로 정당화되고 있었다는 점은 정조대 탕평이 현실 속에서 작동하고 있었던 또 다른 일면을 반영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탕평의 ‘측근 비호 맥락’ 분석을 통해 정조시기 정치적 목표이자 레토릭이었던 ‘탕평’이 실제 현실에서는 정조가 자신의 측근 세력의 보호를 위해 그 논리를 역이용하고 있었을 확인할 수 있다. 신하들 역시 탕평의 권위로 교묘하게 자신을 보호하려 했다는 점에서, 탕평이 나타내는 조화와 공존의 의미는 이미 상실된 상태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 금령 설정을 통해 비판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탕평’의 모습이 과연 현대 사회에서 평화와 공존을 상징하는 대표적 정치 기제로 설명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IV. 맺음말

한 시대를 특정한 이미지와 언어로 기억한다는 것은 그 시대적 상황을 대중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작업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 시대에 대한 획일적인 기억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위험한 작업이기도 하다. 현대 사회에 있어 '18세기 정조의 탕평 정치 시기'와 '19세기 세도 정치 시기'가 그러한 작업의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한다. '탕평 정치'와 '세도 정치'만 들어도 자연스럽게 당시의 이미지와 시대적 상황을 긍정과 부정이라는 양 극단의 측면에서 떠올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흑백 논리가 만연하게 된 이유에는 역사학계의 학문적 발전상과 90년대라는 시대적 상황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 식민사관의 극복이라는 하나의 목적과, 90년대 등장한 문민정부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정치 지도자 모델이 정조라는 당시의 시기를 끄집어냈기 때문이다. 두 욕망은 정조시기에 현대인들의 '환상'을 덧댄 레토릭을 형성시켰고 이는 정조 시기와 그 이후의 시기에 대한 계기성과 연결성을 상상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거의 필요성에 의해 형성된 시대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당시에 대한 보다 실제적인 이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정조 실록 속 나타나는 탕평의 발화 맥락을 살펴보고, 탕평이 다양한 의미망 속에서 사용되었음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다. 정조의 탕평이 영조의 탕평을 계승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하는 시도 속에서 정조시대에도 탕평은 여전히 유효한 정치이념으로 작동되면서도, 동시에 탕평에 부여된 권위가 정조 자신의 측근 세력의 비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양상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었다. 정조가 측근세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탕평의 권위를 활용한 것은 당파 간의 논리를 존중하고 화합을 이끌어 낸다는 탕평의 궁극적 목적을 부정할 수 있는 역설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조 시대 탕평에 담긴 복합적인 면모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정조의 탕평을 영조의 조세탕평을 진화론적으로 극복한 의리탕평으로, 또 그 안에서 봉당의 조화와 공존을 위한 중재의 역할을 수행한 정조의 리더십이라는 차원에서만 정조시대를 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정조의 '탕평 정책'은 봉당의 치열한 갈등을 '타파'하고, 여러 사회 개혁 논의를 이끌어 일정부분 성공시켰다는 점에서 분명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정조의 탕평이 봉당 간의 '공존과 조화'를 추구 했다고보다, 갈등 자체를 '봉쇄'하는 성격을 동시에 지녔다는 점에서 정조대 탕평을 보다 복합적인 당대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는 보고자 하는 방식으로 탕평을 규정하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을 특수하고 예외적인 것으로 외면해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의 내용을 통해 정조시기에 대한 다면적인 이해가 조금이나마 되었기를 바란다. 필자의 부족한 역량으로 인해 실록의 모든 부분을 보지 못하고, 사건의 맥락을 더 깊이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을 느끼나, 실록을 통해 당시 '탕평'이 실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이러한 미진한 점을 보완하고, 더욱 다양한 근거들을 통해 당시의 시대상을 입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는 바이다.

참고문헌

1. 사료

『정조실록』

『일성록』

2. 학술 논문

김백철, 「1990년대 한국사회의 정조신드롬 대두와 배경」, 『국학연구』 18집, 2011.

김성우, 「정조(正祖)의 환영(幻影)」, 『민족문화논총』 68집, 2018.

김용흠, 「19세기 전반 勢道政治의 형성과 정치운영」, 『韓國史研究』, 2006.

김태희, 「정조 탕평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2.

노대환, 「19세기 정조의 잔영과 그에 대한 기억」, 『역사비평』, 2016.

박현모, 「正祖의 蕩平정치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4집, 2000.

박현모, 「정조의 탕평정치 연구2: 『醫國論』의 관점에서 본 정조의 리더십」, 『정신문화연구』 26집, 2003.

안효성, 「정조탕평책(正祖蕩平策)의 공공성(公共性)과 공론정치(公論政治)의 좌표(座標)」, 『해석학연구』 36집, 2015.

안효성, 「정조의 탕평 소통 리더십과 민주 시대의 사이-소통 리더십」,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8집, 2017.

오수창, 「오늘날의 역사학, 정조 연간 탕평정치 및 19세기 세도정치의 삼각대화」, 『역사비평』 213집, 2016.

이태진, 「정조: 계몽 절대군주」, 『한국사 시민강좌』, 1993.

이경구, 「총론 : 새롭게 보는 정조와 19세기」, 『역사비평』 115집, 2016.

최성환, 「조선 후기 정치의 맥락에서 탕평군주 정조 읽기」, 『역사비평』 115집, 2016.

3. 단행본

김인걸 외, 『정조와 정조 시대』,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노대환 외, 『정조와 정조 이후: 정조 시대와 19세기의 연속과 단절』, 역사비평, 2017.

박현모, 『정지가 정조』, 푸른역사, 2001.